

틱낫한 스님 '삶과 깨달음의 노래'

지도 않았다. 반전주의자인 스님은 결국 남베트남 정부(사이공 정부)와 북베트남 정부 양쪽의 미움을 받고 베트남에서 추방당하는 몸이 되었다. 조국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자 1968년 프랑스로 망명했다. 이후 수천 명에 달하는 베트남 난민을 구하기 위

'역사의 장(Historical dimension)'으로 반전시(反戰詩)가 대부분이다. 자신이 경험한 베트남 전쟁과 인간과 자연의 황폐화, 망명 생활에서 느낀 쓰라림 등이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시는 단순히 이런 고통스럽고 어두운 체험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의 축복과

너를 쳐 쓰러뜨려도 / 구더기처럼 기어 올라 / 네 몸을 갠아먹거나 / 팔다리를 자르고 / 내장을 꺼낸다 해도 / 아우야, 기억하거라 / 기억하거라 / 사람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권고 卍)

2부 '궁극의 장(Ultimate dimension)'에는 '깨어있음', '마음 총만함' 등 스님의 깨달음이 여러 형태의 시로 표현되어 있다. 틱낫한 스님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도 미래도 아니요 '지금, 여기'에서 현재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미래에 극락에 태어나기 위해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이 평화롭고 자비로우며 즐겁기 위해 서라는 것이다.

나는 너를 버려주고 / 너는 나를 버려준다 / 너에게 평화를 주고자 나는 이 세상에 있고 / 나를 기쁘게 하고자 너는 이 세상에 있다 (너와 나 卍)

시마다 스님이 직접 쓴 시작 노트가 붙어 있어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시란 본시 입으로 읊미하게끔 만들어진 문학 장르다. 틱낫한 스님의 시 또한 노래로 만들어져 세계 곳곳에서 불려졌다.

평화에 대한 간절한 소망으로 바꾸어 놓고 있다.

1965년 '사회봉사청년학교'에 속한 젊은이들이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목숨을 잃었을 때에도 중요성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경계했다.

'저들이 산 같은 증오와 폭력으로 /

출판 담당 = 여수령 기자 snooky@buddhania.com



◇오성 선씨 종가의 아흔아홉칸 저택.



◇일성 김씨 문충공 김중직 종가.

종갓집 생활·삶의 훈기 담아



명문 종가를 찾아서

명문종가를 찾아서

이연자 지음

이연자 한배달 우리문화원장이 펴낸 <명문 종가를 찾아서> (김치라인)는 1년 6개월 동안 전국에 흩어져 있는 명문종가 16곳을 발품을 팔아가며 찾아낸 끝에 완성됐다. 전통의 맥을 올바르게 지켜나가고 있는 종갓집의 멋스러운 생활문화와 그 속에서 삶의 훈기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사기 형식으로 사진과 함께 담겨있다. 지은이의 눈에 비친 종가의 모습은 시대가 변하면서 차츰 변해가고 있었다. 의성 김씨 지촌 종가는 350년 된 종갓집을 전통 생활문화 체험장과 예술인들의 창작 공간으로 개방했

고, 울곡 이씨의 신주는 종손이 사는 아파트 서재에서 컴퓨터와 마주보면서 아침저녁으로 종손의 문안 인사를 받고 있었다. '아름다운 우리 전통을 편리하게 다듬어서 다음 세대로 물려줘야 할 텐데, 5백년 전 예법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답답한 일이다'는 경주 이씨 익재공과 청가공 종손의 말을 인용하며 청년을 이어온 종갓집이 앞으로라도 청년을 이어가기 위해 변화할 올바른 방향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편리한 현대 의례에 밀려 종갓집의 잔치상과 차례상을 좀처럼 구경하기 어려운 요즘 종갓집 의례를 생생한 사진과 함께 글로 소개해 추석을 앞둔 시점에서 독자들에게 큰 의미로 다가갈 것 같다. 값 1만8천원.

김주일 기자

군더더기 없는 언어의 결정. 그것이 시(詩)다. 버리고 버려서 마지막까지 남은, 다른 어떤 말로도 대체 불가능한 언어의 직조물이 바로 시인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틱낫한 스님이 40여년에 걸쳐 쓴 시 100여 편이 담긴 <부디 나를 참 이름으로 불러다오> (이현주 옮김, 두레)는 틱낫한 스님의 삶이 응축된 책이라 할 수 있겠다. 현재 국내 서점가에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틱낫한 스님은 누구인가. 평화운동가이자 난민공동체의 지도자인 틱낫한 스님은 베트남 왕조의 행정관료 가문에서 태어나 16세에 출가했다. 이름의 첫 글자 '틱(Thich)'은 석가모니의 석(釋)에 해당하는 베트남어고, 법명인 '낫한(Nhat Hanh)'은 일행(一行)을 뜻한다. 베트남 전쟁 당시 파리평화협상에 파견된 불교평화대표단의 단장이기도 했던 스님은 공산주의를 지지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반공의 입장에 서

부디 나를 참 이름으로 불러다오

틱낫한 지음 / 이현주 옮김

40여년에 걸쳐 쓴 스님의 시 100편

전쟁·인간·자연에 대한 통찰과 희망 표현

해 20만 달러를 모금해 800여 명의 보트 피플을 구조했으며, 프랑스 로테 가론 지역에 불교명상수련원 '플립빌리지(자두마을)'를 세우고 봉사활동에 나섰다. 스님은 현재 미국 버몬트에 세운 '그린 마운틴 다르마 센터'와 플립빌리지를 오가며 가르침을 펴고 있다.

시집은 2부로 이루어져 있다. 1부는

한국사상과 시사

김용구 지음

탁월한 사상가 언설사상 뿌리 찾아



<한국사상과 시사> (불교출판사)는 평생 우리의 '말과 논'에 대해 연구해 온 언론인 김용구 씨가 말, 논, 의, 언설, 언어 등에 대한 논문들을 한 권의 책으로 엮어 낸 것이다. 특히 이 책은 표현과 정신의 문제에 천착한 우리 사상가들의 학문적 성과를 다루고 있다.

원효, 도선, 최치원, 이규보, 김시습, 이이, 한용운 등 탁월한 사상가들의 정신과 표현법 등을 통해 지혜로운 우리 문화의 광맥을 찾고 우리 민족과 언설사상의 뿌리를 찾는다. 이 책에 등장하는 '언설'이라는 용어는 불교용어로 원효와 최치원의 글에서 이미 등장했다는 것이 지은이의 설명이다. 이규보와 김시습, 이이, 한용운 등

도 작가정신과 표현법 등 언설의 탐구에 매달린 경우다. 우리말의 길을 언 사상가로 지은이는 원효를 꼽는다. 원효는 그의 저서 <금강삼매경론>에서 '언어(言語)', '언로(言語)'라는 말의 길을 찾아 냈으며, 비로소 우리문화에서 '언로(말길)'이라는 표현이 탄생했다고 말한다. 또 도선은 불교적 '무기(無記)'를 지키면서 '무법지법(無法之法)', '무설지설(無說之說)'을 설파한 독특한 사례이나 그의 언어도단, 불립문자는 자체로 새로운 설(說)이라고 저지는 평가한다.

언어, 언설 등 수사법은 메소포타미아 신화, 함라비 법전, 이집트 신화 등 이미 신화시대부터 꽃피웠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무명씨'들이 지은 우리의 시조나 속담에서도 언설 사상이 녹아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지은이 김용구 씨는 한국 일부 논설위원과 고려대 석좌교수를 지냈다. 값 8천원.

김주일 기자 jkim@buddhania.com



수화사랑 친구사랑

방해성 염음

청각장애인은 물론 수화를 배우려는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휴대용 수화집 <수화사랑 친구사랑> (연화원)이 나왔다.

자원봉사자 위한 휴대용 수화집

광림사 연화복지원 원장 해성 스님이 펴낸 이 책은 한글 지화부터 인사, 학교, 종교 등 일상에서 흔히 사용되는 수화를 그림과 함께 설명해 놓았다. 또 청각장애인을 대할 때 당

황하거나 실수하지 않도록 '청각장애인에 대한 에티켓'을 실었다. 해성 스님은 "언제 어느 때라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며 "청각장애인과 그 가족, 그리고 자

원봉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출판 의의를 밝히고 있다.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제작된 이 책은 현재 서울시 전지역의 구청과 동사무소 등 관공서에 배포됐으며, 개인은 연화원에서 무료로 받아 볼 수 있다. 02-2202-5831

밀교진언행의 의미·수행법 제시

어떻게 성불할 것인가

석법성·총지화 편역

<어떻게 성불할 것인가?>는 제목 그대로 깨달음의 길을 걷는 수행자들을 위한 수행 지침서다. 밀교의 진언행과 핵심 진언에 대한 의미와 공덕, 수행법 등을 소상히 밝히고 있다.

선종 중심의 한국 불교에서는 밀교를 터부시하거나 배척하는 경향이 짙지만, 역설적이게도 한국 불교에는 밀교적 요소가 들어와 접목되어 있다. 각종 의식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독송하는 짧은 경전에도 밀교적 요소가 다분히 남아 있다. 불교 수행에 있어 진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다.

이 책은 <신수대장경> 권46에 수록되어 있는 논서 <현밀원통성 불심요집>을 편역한 것이다. <현밀원통성불심요집>은 한국 불교의식 경전의 대명사라 할 만한 <천수경>이 원문의 내용에 앞서 "정구업진언 수수리 마하수리..."의 진언으로 시작하여 진언으로 끝나는 비법(秘法)을 밝히고 있다. 값 8천원.

이연자 기자 elee@buddhania.com

불교만화이야기

두번째권 출간



로 한 우학스님의 생활법문, 재미있는 불교설화 '불거품으로 만든 장신구', 만화로 읽는 벽화이야기 '이차돈', 만화로 풀어보는 불교교리 '사무량심' 등과 제1회 만화공모전 연꽃특별상 수상작 윤광미 학생의 '선불' 등이 담겨있다. 값 3천원.

금주의 베스트도서 10

책임 역시이론 집기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관심	법 상 무 한	명진출판사
2	화(Anger)	틱 낫 한	명진출판사
3	신묘장구대다라니강해	임근 등	솔 바 람
4	달라이라마의 행복론	달라이라마	김 영 사
5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류 시 화	김 영 사
6	틱낫한의 평화로움	틱 낫 한	열 립 원
7	달라이라마와 도울의 만남	김 용 욱	통 나 무
8	영가천도	우 룡 호 립	
9	미오지간	성 운 불 광	
10	꽃은 저도 향기는 그대로일세	명 정 예 문	

도서 안내: (02)737-0695

인터넷 도서 주문
yosiamun.com
전화 : 021737-0695 / 팩스 : 021737-0696

중풍 귀하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풍(風)의 치료법은 아직 확립된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풍(風)! 예방이 제일입니다.

단, 2회 복용에 평생 뇌졸중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저희는 예로부터 전래되어온 체질개선요법(중풍 예방 식품요법)을 10여 년전부터 실행하여 많은 분들께 복망시켜 왔고 이와같은 식품요법을 실행하신 분들은 아직 단 한번도 발병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여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 이런 증상이 뇌졸중(중풍)을 경고하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즉, 갑작스러운

『부모님께 효도선물로 최고 인기 식품입니다.』

·본 식품요법 (1인 2회복용: ₩120,000만원)이 귀하를 지켜드릴 것입니다.

“졸시노”는 뇌졸중 예방요법의 식품입니다.

본 식품요법은 일본의 규슈가고시마현 구니와게시 지방에서 시작되어(게이쇼엔) 양로원의 여러노인들이 비법을 중언하고 일본내에서 선풍적인 유행을 하였습니다. 이미 수만명의 사람들이 실행하였고, 일본 의학회와 국내 학회에도 소개된 바 있습니다. 사용하신분은 한사람도 뇌졸중으로 쓰러진 사람이 없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성분 : 탄력액, 매실, 머위 등)

■ 현대에 상적임보령 1억 가량
■ 복용 : 100일 후 발병시 100% 보상

○ 상담문의 ☎ (02)3437-8282 ○

탄허대종사 동양사상특강CD안내

탄허대종사의 깊고 넓고 높은 강의를 생생한 육성으로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탄허대종사께서 1977년~1982년에 강의하신 내용을 정리해 18장의 CD에 담아 보급 합니다.

◆ 가 격 : 18장 1세트 126,000원 (교재 1권 포함)
◆ 제작·보급 : 서울시 중로구 경운동 64-4 전대빌딩 본관 202호 교림출판사
◆ Tel 02)733-3334 / H·P 018)733-3334 02)733-3359
http: www.tanheo.com

밝은미소 · 건강한 마음 · 보람찬 인생
편안한 노후생활, 자연과 함께 여유로운 삶을 보낼수있는 곳

성라 실버타운 (유료양로원)

▶ 경기도 가평소재

▶ 시설안내

- 숙실수 : 96실(2인 기준) · 동·충수 : A동, B동 - 지하 2층, 지상 4층
- 숙실평형 : 9.5평
- 대대시설 : 행사시설, 의료시설, 생활시설, 운동시설, 온천탕(시공중) 등.

[입주비용]

평생입주 및 추양입주	구 분	입주보증금	월생활유지비	비 고
평생입주	1실 1인	50,000,000	500,000	
	1실 2인	50,000,000	900,000	1인 25,000,000
입주금 현납입주	1실 1인	70,000,000	없음	
	1실 2인	100,000,000	없음	

[입주상담 및 문의] 강건구 총무이사 011-9971-3743
"노후생활을 보람있게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성라원 이사장 석정화

※ 공양주, 맹자님 모십니다.

사회복지법인 성라원·성라실버타운
본부사무소 : 서울시 성북구 성북 2동 285번지 가평사무소 : 경기도 가평군 상면동 49-4번지
☎ 02)743-0294 / 743-4026 ☎ 031)585-3323~5